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동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지 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김 동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지연

인 준 서

김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대학원에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시간은 지나갈테니 2년이 흐른 후에는 어느 곳에라도 도달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걱정했던 것 보다는 편안한 일상들을 지나보내고 어느새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전공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던 제가 대학원을 오고 좀 더 심화된 학업에 열중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마냥 생경하게 느껴지던 차, 학생들에 대한 진심을 연구로 옮기시는 김동희 교수님을 만나 뵙고 논문의 주제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정말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용기를 주신 김동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모자란 저의 논문을 성심껏 심의해주신 김애리 교수님과 김영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대학원에서의 시간동안 열정적이고도 따뜻하게 지식을 전달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 삶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 항상 건강하게 저희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정오빠와 새언니, 언제나 보고 싶은 우리 세린이와 세헌이, 늘 함께 있어 든든한 도련님과 울식구 막내 은선씨. 기쁘고 슬픈, 또 힘들고 신나는 모든 찰나를 함께하고 늘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 아오스딩에게 마음 가득 감사를 전합니다.

2015년 새해 첫날

김지연 올림

논문 개요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S 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307명을 편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크게 일반적 특성 설문지,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극복력 척도, 교우관계 질 척도, 그리고 가족기능 평가척도(FACES-Ⅲ)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는 학년, 인지된 학교 성적,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과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F=5.57, p=.001)의 대학생활적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인식한 그룹이 그보다 낮다고 인식한 그룹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17.72, p<.001).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은 중상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이 중이나 중하 이하라고 답한 그룹보다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고(F=46.26,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6.26, p<.001).
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전공만족도(r=0.509, p<.05), 가족기능(r=0.286, p<.05), 극복력(r=0.574, p<.05), 진로태도성숙(r=0.524, p<.05), 교우관계(r=0.455, p<.05) 등의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년, 극복력(β=0.29, p<.001), 진로태도성숙(β=0.14,

p=.001), 교우관계(β=0.26, p<.001), 전공만족도(β=3.15, p<.0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은 전공 만족도, 극복력, 진로태도성숙, 교우관계, 학년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학년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극복력을 증진시키고 교우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진로태도를 성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3. 용어의 정의 ····· 4

가. 대학생활적응 ····· 4

나. 극복력 ····· 5

다. 진로태도성숙 ····· 5

라. 교우관계 ····· 6

마. 가족기능 ····· 6

Ⅱ. 문헌고찰 ····· 7

1. 대학생활적응 ····· 7

가. 적응 ····· 7

나. 대학생활적응 ····· 9

2. 대학생활적응 관련요인 ····· 10

가. 극복력 ····· 10

나. 진로태도성숙 ····· 12

다. 교우관계 ····· 13

라. 가족기능 ····· 15

ㄱ. 가족응집성 ····· 16

ㄴ. 가족적응성 ····· 17

마. 전공만족도 ····· 18

Ⅲ. 연구방법 ····· 20
1. 연구설계 ····· 20
2. 연구대상 ····· 20
3. 연구도구 ····· 20
가. 대학생활적응 ····· 20
나. 극복력 ····· 22
다. 진로태도성숙 ····· 23
라. 교우관계 ····· 25
마. 가족기능 ····· 26
바. 일반적 특성 ····· 27
4. 연구의 윤리적 측면 ····· 28
5. 자료수집 방법 ····· 28
6. 자료분석 방법 ····· 29

Ⅳ. 연구결과 ····· 30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0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 32
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 34
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 35

Ⅴ. 논의 ····· 37

Ⅵ. 결론 및 제언 ····· 4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1>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별 문항 ····· 22
<표 2> 극복력의 하위 영역별 문항 ····· 23
<표 3>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영역별 문항 ····· 25
<표 4> 교우관계의 하위 영역별 문항 ····· 26
<표 5>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별 문항 ····· 27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1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 33
<표 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 35
<표 9>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 3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생의 모든 과정에서 변화를 직면하고 그에 대한 적응을 반복한다. 인생주기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 맞서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생의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와 직면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인간의 환경 적응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삶의 과정 안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변화의 경험과 적응은 인간 삶의 계속적인 과제이며 필수요소라 하겠다.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인 청년기는 최근 인간발달 과정의 특징적인 한 시기로 분류되고 있으며(Sprinthall & Collins, 1995), 많은 연구에서 한 인간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위하여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김효원, 2005).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7%이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3).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70%를 웃도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서 청년 시기를 시작하고 적응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매우 치우쳐 있어 졸업 후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급격히 늘어났지만 제도권 교육 안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 폭넓은 인간관계와 자기 주도적인 전공분야의 학문을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경험, 습득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대학입학 이후 주어지는 급격한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직면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필요하며(신지영, 2000), 학업적 성취를 위해

스스로 단련하고 관리하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거주지역이 학교와 인접한 곳이 아니라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인간은 대학생활 안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며 직면하게 된 여러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Baker & Siryk, 1986), 이는 규범적인 발달과업과 유연한 적응이 필요한 전환의 기회이자 도전일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전환점 혹은 광범위한 발달체계 안에서 개인의 삶과 삶의 경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관찰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기도 하다(Fass & Tubman, 2002).

하지만 일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보고서(전남대학교 학생지원처, 2009)에 따르면 학업의 어려움, 생활 및 시간관리, 전공, 적성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직면해 있고,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35%에 그쳐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은아와 장금성, 2012).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2)에 따르면 재학생 10명 중 3명은 휴학상태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핵심 취업연령층(25-29세)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졌지만 휴학률은 변화하지 않았다(장성화, 2014).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학 이외에 경기불황이나 취업난항, 또는 심리적 부적응, 성적 부진 등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종운과 김지현,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은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보다 나은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과의 특이성이 명확히 존재한다. 타과에 비해 많은 학업량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되며 실습과정에서 직면

하게 되는 환자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Seyedfatemi, Tafreshi, & Hagani, 2007), 실습기간 중의 과제 및 숨가쁜 일정 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숙고의 과정 없이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김은아와 장금성, 2012),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학과 내에서 겪게 되는 적성의 불일치는 더욱 큰 혼란을 가중시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이미 많은 문헌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및 학과의 학업량에 따른 과중한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높은 취업률로 생긴 무분별한 학과 지원으로 인한 적성간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더욱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호학과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은 향후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 투입되었을 때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의 성장에도(곽윤경, 2013), 나아가 간호사의 인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대학생활적응의 선행연구들의 경우 효율적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성, 교우관계 등의 개인요인과 진로결정의 전공관계요인, 가족형태 및 가족관계, 부모에 대한 애착과 독립과정 등의 가족요인 등 다양한 변인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구자은, 2000; 김기형, 2005; 김수지, 2012; 김영자, 2006; 김종운과 김지현, 2013; 김효원, 2005; 박연수, 2003; 송윤정, 2014; 장만철, 2007). 한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따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의 특성에 발맞춰 임상실습만족도 및 학과 스트레스, 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대처양상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교우관계와 진로태도성숙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구현숙과 박현숙, 2005; 김민, 조선희와 전경숙, 2014: 김건희, 2014; 곽윤경, 2013; 박주영, 2011; 박진아와 이은경, 2011; 김은아와 장금성,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극복력, 교우관계, 진로태도성숙 정도 등의 학생 개인요인과 가족기능 등의 가족요인을 포함하여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 및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간호학과라는 특수성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극복력, 교우관계, 진로태도성숙, 가족기능 및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나. 대학생활적응과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교우관계, 진로태도성숙,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업과 관련한 생활과 대인관계, 과외활동 등의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대학과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 애착과 호감, 유대감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Baker & Siryk, 1984).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984)가 대학생활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후 장연주(2007)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극복력(resilience)

극복력이란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그 역경에 적응하고, 이겨내고, 대처하는 내면의 힘과 능력을 일컫는다. 이 유연성과 되돌아오는 능력은 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역경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며 이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힘과 능력을 말한다(Wagnild GM & Collins JA., 2009).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동희(2003)의 만성질환아 극복력 측정 도구를 이현화(2003)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진로태도성숙

진토태도성숙이란 자아의 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해 감에 있어 동일 연령 혹은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1).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

(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검사(Carri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음을 의미한다.

라.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같은 발달과정에서 또래와 가지게 되는 인간관계로 애정이나 관심, 흥미 및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며 독득한 애착관계를 말한다(Hartup, 1983).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ukowski, Hoza와 Newcomb가 개발하였고, Parker와 Asher(1989)가 수정한 교우관계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를 이현정(1994)이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마. 가족기능

가족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행위로서의 가족행동으로 가족 구성원의 욕구충족과 사회활동의 유지, 존속 등에 주는 영향력과 관련된 개념을 말한다(조화경, 2006).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FACES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Ⅲ)를 전귀연, 최기보가(1993)가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Ⅱ 문헌고찰

1. 대학생활적응

가. 적응

적응(Adaptation)은 일상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 혹은 대처결과이며(Lazarus, 1969),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Arkoff, 1968; Adams, 1972; Lazarus, 1976; Schaffer, 1936). 많은 학자들이 적응의 개념을 개인의 대처양상 및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먼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면, Adams(1972)는 적응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개인의 생존은 이러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Lazarus(1976)는 적응을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수동적 과정과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로 설명하였다. Piaget(1963)와 Arkoff(1968) 역시 개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을 동화와 조절로 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단지 환경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자신과 환경의 역동적인 관계를 명확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Arkoff(1968)는 적응의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였는데, 어떠한 환경인지에 따라 적응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황에 따라 일정 상황에서 잘 적응하던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는 적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Allport(1961)는 환경에 대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을 적응이라고 정의하며 그 필수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Schaffer(1956)는 적응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적응은 신체적, 정신적인 실제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둘째, 개인과 환경의 전체적인 요구를 살피고 조화시켜 보다 풍요로운 만족을 가져오게 하며, 셋째, 사회의 규범에 합치되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적응의 개념을 개인의 대처양상으로 보면, Maslow와 Rogers(1976)는 성공적인 적응을 자아실현의 성취로 보고 인간의 실현가능한 최고 잠재 능력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Gates(1970)는 적응이란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에 충만해 있고 사회적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해결해내는 것으로, 개인적 행복감은 내적 적응이며 사회적 효율성은 외적 적응이라고 하였다. Morris(1985)는 적응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써 개인의 요구를 환경의 욕구에 균형을 맞추고 개인의 요구를 현실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상황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응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며(서정희, 2012),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환경의 이용을 최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권혜진, 2007). 나아가 대학생활적응은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과 대학환경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써(신지영, 2000),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나.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말하며(신지영, 2003) 대학 내의 다양한 물리적, 인적 환경과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의미한다(권혜진, 2007).

대학생활의 시기는 성인이 된 후 대학생이 사회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숙하게 감당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학교생활과 학업 뿐 아니라 교우들과 협동관계를 이루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일, 개인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일, 또한 확장된 인간관계에서의 성장을 꾀하는 일 등은 대학생활 안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업에만 매진했으므로 대인관계, 이성문제, 학업, 진로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많다(권혜진, 2007; 전혜경, 2006).

대학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 우울감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하고 나아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재개발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홍계옥과 강혜원, 2010)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적응을 개인의 내적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포함하여 네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 개념은 학업적 적응이다. 이는 대학생이 요구되는 여러 학업적 요인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학업에 대한 동기와 요구에 대한 반응 및 학

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 만족감, 시간 관리와 분명한 목적의식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두 번째 개념은 사회적 적응이다. 이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와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지원 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및 교수와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개념은 개인·정서적 적응으로 이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관한 평가요인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 가치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의 본질과 위치, 역할 등의 자기탐색과정 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말한다. 마지막 개념은 대학에 대한 애착, 대학환경적응이다. 이는 속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의 질에 관한 만족도 및 학업적 목표에 대한 스스로의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적응으로 대학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태도를 설명한다 (김효원, 2005).

이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련한 선행연구들 중 극복력과 진로태도성숙, 교우관계, 가족기능과 전공만족도 및 일반적 특성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생활적응 관련요인

가. 극복력(resilience)

극복력(resilience)이란 위험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에 따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심리 사회적 능력을 말한다. 극복력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였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에게 내재된 강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고, 변화나 스트레스, 위험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김동희와 유일영, 2010). 또한 어떤 개인의 특성 혹은 환경적 배경이 위기에 도전하고 역경을 견디며 긍정적으로 회복 또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한다(박주영, 2011). 또한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부정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성격적 특성 혹은 환경적 보호요인을 가져 주어진 상황적 요구에 맞는 융통성이나 문제해결 책략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해결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미향, 2006; 박연수, 2003).

이러한 극복력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학과 및 실습 스트레스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극복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낮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극복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높아지고 전공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박주영, 2011). 이는 극복력이 떨어질 때 대학생활적응 역시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적응과 극복력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극복력은 다양한 연령층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어져왔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극복력이 학교생활적응의 유의한 중재변수임을 제시하였다(차은주, 2010; 구자은, 2000; 박상희, 2010; 송혜리, 2010).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극복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된 유의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박진아(2011)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극복력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곽윤경(2013)은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극복력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중 낙관적 태도가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덕진,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복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나.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신의 계획 및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아와 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1). 또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이는 태도 및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정에서의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나가는 준비의 정도이기도 하다(김현욱, 1989).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성숙이란 한 개인이 앞으로 나가야 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확고하게 의사결정 하기 위해 자신의 취미, 적성, 흥미 및 능력에 대한 정확한 사전 평가와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적응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희석, 2013).

이기학(1997)은 진로태도성숙을 다섯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개념은 결정성이다. 이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결정성의 의미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안정감을 느낀다.

두 번째 개념은 준비성이다. 이는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의 정도와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을 나타낸다. 세 번째 개념은 독립성이다. 이는 진로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며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네 번째 개념은 목적성이다. 이는 개인의 진로를 선택함으로서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개념으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진로 선택 시 경제적 보상이나 승진 기회, 장래의 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아실현 및 대인 관계 등과 같은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를 아는 것으로 목적성이 높은 사람은 현실적 욕구에 앞서 사회적 수용가능성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선호한다. 다섯 번째 개념은 확신성이다. 자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향후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이기학, 1997).

진로태도성숙은 간접적으로 대학생활만족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조연교, 2014)가 있기는 했지만, 대학생의 취업지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송지은, 2013; 조형래, 2011), 음악대학 전공자들의 진로성숙(이보현, 2014), 대학교 체육특기자들의 수업참여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련성(정희석, 2013) 등과 같이 대학생활적응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요인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다. 교우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또한 출생과 동시에 가족 내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이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간다. 교우관계는 학생들이 서로 애정과 호감,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 하는 관계를 말한다(최민산, 2007). 인간 발달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 뿐 아니라 대학생활의 교우관계 또한 성인 초기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적응의 차원에서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많은 학자들이 교우관계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비슷한 맥락에서 정의하였다. Hartup(1989)은 애정, 흥미, 관심 및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고 독특한 애착관계로 강한 사회적 압력 없이 근접성을 추구하는 사이로 보았으며, Damon(1982)은 개인의 상대편에 대한 선호를 기본요소로 간주하였다. 즉 교우관계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고 사적인 생각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감정과 비밀과 같은 서로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는 지속적이며 양방향적인 관계라고 하였다(이봉화, 2002). 또한 Berndt(1981)은 교우관계를 외적 특성의 묘사, 심리적 태도, 놀이와 연합,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친밀감과 신뢰, 충성된 지지 및 신의의 8가지로 범주화하여 교우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서로 좋아하는 두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쌍방의 관계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비정식적이고 사회적 공감에 의한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제한, 1982). 이상에서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개념들의 공통점은 서로 애착된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교우관계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가 된다. 서로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여 이를 내면화하며, 또래모델의 성공과 실패를 참고로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구별하고, 서로의 칭찬과 비난 등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

는 역할 및 교우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받는다(이봉화, 2002). 이상과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교우관계는 애정, 흥미, 관심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양방향적인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라 말할 수 있다.

대학생활 안에서의 교우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상호의존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대학생활적응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가족관계 다음으로 대학환경에서 형성되는 또래집단의 교우관계를 중요시하며 많은 연구에서 교우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기술하고 있다(장만철, 2007). 따라서 대학생활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성공여부는 학업 성취요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임규혁과 임웅, 2012).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정도를 알아보았다.

라. 가족기능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 등 혈연과 혼인 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 혈육에 의해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생애 최초의 운명공동체이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장이 된다. 이곳에서 인간은 보살핌과 애정, 보호를 받으며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물에 대한 태도, 행동 등을 습득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범을 익히게 된다(박수진, 2009).

Robert와 Feetham(1982)은 가족기능을 과정, 결과, 내용의 측면에서 보았다. 가족기능의 과정적 측면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활동들로 광범위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과 가족,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말하며, 가족기능의 결과적 측면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익에 대한 준비

및 가족재산의 유지와 관리, 사회화 과정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돌봄 기능을 말한다. 또한 가족 기능의 내용적 측면에서 가족생활의 존속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과정 안에 있고 지역사회나 국가 사회와 유대를 맺음으로써 한 단위가 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성장 발달과 행동양식, 가치관 형성 뿐 아니라 개인과 환경, 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기능이 대학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효원(2005)은 자신이 속한다고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이 가족 간의 유대와 결속의 정도가 높을 때 대학생활적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박유화(2001)는 가족의 응집성 수준이 높은 연결된 가족이 응집성 수준이 낮은 유리되고 분리된 가족보다 높은 대학생활적응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송정애, 장정순, 2010)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잘 이루어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수지,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적 측면인 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해 고찰해보고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ㄱ. 가족응집성

가족의 응집성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족들 간의 밀착되는 관계나 격리된 관계인 극단의 끝을 찾는 하나의 연속체로 개념화할 수 있다(배새봄, 1999). Olson(1983)은 가족응집성을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에게 가진 정서적 유대감이나 구성원이 서로 결속되는 정도로 정의하여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가족응집성이 높은 수준의 가족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서적 유대의 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어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의 정서적 성장 발달을 최적화하여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다. 반면, 응집성의 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구성원의 개인성 무시와 사적요소의 차단, 지나친 소속감의 요구로 대인관계 능력의 약화와 같은 역기능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박수진, 2009). 그러므로 가족의 응집성이 높은 경우 적절한 가족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적 유대, 가족의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와 오락의 8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8가지 하위영역에 의해 측정되는 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탈(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밀착(enmeshed)으로 구분된다.

ㄴ. 가족적응성

가족적응성은 변화와 유연성에 관한 요인이고, 상황이나 발달 단계의 요구에 따라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거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가족생활의 내외적인 필요와 목표에 따라 그들의 규칙, 역할 및 전략 등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말한다(박수진, 2009). Olson(1983)은 가족적응성을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구조적이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으며 가족전체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가족을 뜻하며, 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경직된 가족이나 혼돈 가족으로 가족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취약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김소희, 2006). Olson(1983)에 따르면 가장 기능적인 가족이란 가족체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형태안정과 체계를 변화, 성장시키고자 하는 형태발생간의 균형을 이룬 가족이다. 그는 가족적응성을 진단, 평가하기 위하여 주장, 통제, 훈육, 협상, 규칙의 6가지 하위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6가지 하위 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적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순서로 혼돈된(Chaotic), 융통적(Flexible), 구조적(Structured), 경직된(Rigid) 수준의 4가지로 구분된다.

마.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며(하혜숙, 2000),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욕구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이동재, 2004) 정의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기대와 직업 준거 집단 간의 비교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기대와 진로, 직업 준거 집단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하혜숙, 2000).

개인의 전공 선택은 여러 요인의 복합적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성별, 학업성적, 적성, 지능, 재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 부모나 교사의 지향, 사회배경, 교육제도, 산업 구조 등 외부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진로의식이 형성되며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선택한 전공만족도는 그들의 진로의식의 형성과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임용수, 1993).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은 진로의식의 발달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이유는 개인의 적성과 자질에 상관없이 대학에만 진학하면 된다

는 경쟁적 사회풍토와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살리는 진로지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이미라, 2014).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 없이 취업률 등의 비전만을 보고 전공을 결정하여 진학한 경우, 전공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고 전공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원숙(2009)은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학사경고 집단과 성적 우수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적 우수 집단의 경우가 학사경고 집단에 비하여 높은 학과만족도를 나타냈다는 결과가 있다(강순화, 이은경과 양난미, 2000).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일반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이 학업적 적응에, 관계만족과 인식만족은 사회적 적응에, 관계만족은 개인-정서적 적응에,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은 환경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모두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이다(송윤정, 2014).

이렇듯 전공만족도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한 개인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와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4년제 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 78명, 2학년 78명, 3학년 76명, 4학년 75명이었고,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희망자에 한하여 표집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대학생활적응 척도, 극복력 척도, 진로태도성숙도, 교우관계 척도, 가족기능 척도 5개를 사용하였다.

가. 대학생활적응(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67문항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학업적응(academic adjustment)영역은 대학생이 대학 내에서 수업 및 시험과 같이 학업과 관련한 생활에 적용하는 수준을 측정하며 2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둘째, 사회적응(social adjustment)영역은 대학생이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 및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개인-정서적응(personal-emotional)영역은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불편감이나 문제점을 측정하며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대학환경적응(institutional adjustment)영역은 대학생이 본인의 대학에 대한 전반적 애정이나 호감의 정도로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Likert식의 9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극복력과 진로태도성숙, 교우관계 및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사이의 문항을 풀도록 하였다. 부적응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917이다.

<표 1>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별 문항

세부항목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학업적응	3, 5, 6*, 10*, 13, 17*, 19, 21*, 23, 25*, 27, 29*, 32*, 36, 39*, 41*, 43, 44, 50, 52*, 54, 58*, 62, 66	24	0.86
사회적응	1, 4, 8, 9, 14, 16, 18, 22*, 30, 37, 42*, 46, 48*, 51*, 56*, 57*, 63, 65	18	0.85
개인-정서 적응	2*, 7*, 11*, 12*, 20*, 24, 28*, 31*, 35*, 38*, 40*, 45*, 49*, 55, 64*, 67	16	0.79
대학환경적응	1, 4, 15, 16, 34*, 36, 42*, 47, 53, 56*, 57*, 59*, 60*, 61*, 65	15	0.84

* 역문항

나. 극복력

극복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김동희(2003)의 만성질환아 극복력 측정 도구를 이현화(2003)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 32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 내적 특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자신감, 낙천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대처 양상 특성은 상황의 긍정적인 재평가와 문제 해결 시 나타나는 특성들로 적극성, 도전성, 인내심, 문제 해결의 계획성, 자원동원성, 자율성, 책임감, 통제감, 융통성을 포함하며 자립성에 10문항, 자원동원성에 2문항을 차지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대인관계특성은 이타성, 민감성, 능숙한 사회적 기술, 친밀감, 협동성 및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가 포함되

고 친밀성에 5문항,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극복력 측정도구는 Likert식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나, 타 변수와의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하여 역문항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921이다.

<표 2> 극복력의 하위 영역별 문항

세부항목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긍정적 자기이해		1, 2, 3, 4, 5, 6, 7, 8, 9, 10	10	0.91
대처양상 특성	자립성	11, 12, 14, 15, 16, 17, 19, 20, 21, 22	10	0.82
	자원동원성	13, 18	2	0.42
대인관계 특성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23, 28, 30, 31, 32	5	0.82
	친밀성	24, 25, 26, 27, 29	5	0.73

다. 진로태도성숙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 성숙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 검사는 자아와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일생을 결정하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알아보는 진단적 목적과 진로상담 과정에서 실제의 직업 세계와 관련하여 내담자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적합한 진로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진로태도성숙 검사는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그리고 확신성의 5개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47개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위영역이 측정하는 진로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한다. 둘째,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며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을 나타낸다. 셋째, 독립성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측정한다. 넷째, 목적성은 진로선택을 통한 가치추구의 내용, 즉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욕구와 현실의 타협정도를 나타낸다. 다섯째,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분포되어있다. 부적응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899이다.

<표 3> 진로태로성숙의 하위 영역별 문항

세부항목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결정성	1, 6*, 11, 16*, 21*, 26*, 31, 36, 41*, 45*	10	0.84
준비성	4, 9, 14*, 19, 24, 29, 34, 39, 43, 47	10	0.74
독립성	5*, 10*, 15*, 20, 25*, 30, 35, 40, 44*	9	0.80
목적성	2*, 7*, 12*, 17*, 22*, 27*, 32*, 37*	8	0.81
확신성	3*, 8*, 13, 18*, 23, 28*, 33, 38*, 42*, 46*	10	0.85

* 역문항

라. 교우관계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ukowski, Hoza와 Newcomb(1987)가 개발하고 Parker와 Asher(1989)가 수정한 교우관계 척도를 이현정(1994)이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우관계 척도는 인정과 관심, 갈등해결,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과 관심은 학생들 서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심과 지지, 흥미의 정도를 측정한다. 둘째, 갈등해결은 학생 서로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셋째, 갈등과 불신은 교우관계에서의 불일치와 불신, 괴롭힘의 정도를 측정한다. 넷째, 도움과 지도는 일상적인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다섯째, 교제와 오락은 대학 내외의 환경에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를 측정한다. 여섯째, 친밀한 의사교환은 친구끼리 나누는 사적인 비

밀이나 자신의 감정 상태에 관하여 나누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분포되어있으며 부적응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여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935이다.

<표 4> 교우관계의 하위 영역별 문항

세부항목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정과 관심	3, 4, 5, 7, 9, 11, 12, 14, 29, 40	10	0.83
갈등해결	10, 25, 34	3	0.65
갈등과 불신	2*, 8*, 19*, 20, 26*, 30*, 36*, 39*	8	0.76
도움과 지도	16, 17, 23, 27, 31, 32, 33, 35, 38	9	0.88
교제와 오락	1, 6, 18, 21, 22	5	0.61
친밀한 의사교환	13, 15, 24, 28, 37	5	0.77

* 역문항

마.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Portner와 Bell에 의해 1978년 최초 개발되고 Olson과 Lavee(1985) 등에 의해 3차례 수정 보안 및 표준화 된 후 전귀연(1993) 등이 번안한 가족기능 평가척도 FACES-Ⅲ (Family-Adaptability-Cohension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인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홀수

문항인 가족 응집성의 10개 항목과 짝수 문항인 가족 적응성의 10개 항목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가족 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 즉,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일체감과 한 개인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을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도구는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분포되어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좋음을 나타내고 점수가 낮을수록 나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914이다.

<표 5>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별 문항

세부항목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가족 응집성	1, 3, 5, 7, 9, 11, 13, 15, 17, 19	10	0.89
가족 적응성	2, 4, 6, 8, 10, 12, 14, 16, 18, 20	10	0.80

바.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학년, 종교, 거주형태, 인지된 학교성적과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 그리고 간호학의 전공 만족도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기입식 설문연구로 설문지의 첫 장에 연구의 목적을 나타냈고, 사생활 비밀보장, 익명성,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는 설명문을 나누어주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원하지 않을 때나, 중도에 설문응답을 중단하여도 불이익이 없음을 알렸다.

연구대상자는 별도의 장소 이동 없이 학교 강의실 내에서 쉬는 시간 혹은 수업 시간 후에 작성하게 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었고 연구자가 설문지를 푸는 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여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위하여 설문지는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 내에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며,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작성에만 이용된 후 해당기간이 지나면 소각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 보관은 연구자의 컴퓨터에만 관리되며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윤리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IRB No. sswuirb2014-047).

먼저 예비 설문지를 제작하여 2014년 5월 S 여자간호대학교의 재학생 중 1학년과 3학년 100명에게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문장 등을 확인한 후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로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경우 설문지 배부 및 회수기간은 2014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총 30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나 응답지 다수의 문항에 불응하거나 성의 없이 일률적으로 답변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30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해준 학생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나누어 주었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극복력, 교우관계, 진로태도성숙, 가족기능과의 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학년은 1학년 76명(25.25%), 2학년 78명(25.91%), 3학년 73명(24.75%), 4학년 74명(24.58%)으로 전 학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평균연령은 22.8세로 19세부터 44세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24세 이상이 77명(25.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1세가 72명(24%)으로 많았다. 22세가 54명(18%), 20세 이하가 51명(17.0%)이었으며 23세가 45명(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무교 105명(34.88%), 기독교 101명(33.55%), 천주교 45명(14.95), 불교 16명(5.32%)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형태는 자가가 가장 많은 253명(84.05%), 자취 42명(13.95%), 하숙 2명(0.66%)의 순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 성적은 상위권 17명(0.33%), 중상위권 75명(5.65%), 중위권 146명(24.93%), 중하위권 45명(48.50%), 하위권 17%(14.95%)로 본인의 성적을 중위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은 상 3명(1.00%), 중상 46명(15.28%), 중 172명(57.14%), 중하 62명(20.60%), 하 18명(5.98%)이었다.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1)

문항		빈도	백분율(%)	평균 ± 표준편차
연령	20세 이하	51	17.00	22.8±3.2
	21세	72	24.00	
	22세	54	18.00	
	23세	45	15.00	
	24세 이상	77	25.67	
종교	기독교	101	33.55	
	천주교	45	14.95	
	불교	16	5.32	
	기타	33	10.96	
	무교	105	34.88	
학년	1학년	76	25.25	
	2학년	78	25.91	
	3학년	73	24.25	
	4학년	74	24.58	
학교 성적	상위권	17	0.33	
	중상위권	75	5.65	
	중위권	146	24.92	
	중하위권	45	48.50	
	하위권	17	14.95	
부모님 경제력	상	3	1.00	
	중상	46	15.28	
	중	172	57.14	
	중하	62	20.60	
	하	18	5.98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301)

	문항	빈도	백분율(%)	평균 ± 표준편차
현재 거주 형태	자가	253	84.05	
	하숙	2	0.66	
	자취-혼자	13	4.32	
	자취-형제, 자매, 친척과	23	7.64	
	자취-친구, 동료와	6	1.99	
	기타	4	1.33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표 7>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는 연령, 학년, 학교 성적, 부모님 경제력과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 나타났다. 연령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은 23세에서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F=3.55, p=.008), 학년은 4학년이 가장 높았다(F=5.57, p=.001). 학교 성적은 본인이 상위권에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17.72, p<.001).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인식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3.37, p=.04). 마지막으로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6.26, p<.001).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N=301)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s test
연령	20세 이하[a]	119.92	16.30	3.55	0.0076	a, b, c, e < d
	21세[b]	119.25	16.19			
	22세[c]	115.16	18.44			
	23세[d]	127.93	17.03			
	24세 이상[e]	121.05	17.87			
학년	1학년[a]	122.92	16.30	5.57	0.001	a, b, c < d
	2학년[b]	117.71	19.34			
	3학년[c]	115.36	16.56			
	4학년[d]	125.62	15.87			
종교	기독교	121.98	17.81	0.68	0.5076	
	기독교 외 종교	119.61	17.09			
	무교	119.38	17.62			
거주 형태	자가	119.92	17.82	1.07	0.3023	
	자가 외 거주 형태	122.77	15.64			
학교 성적	중상위권 이상[a]	127.29	14.84	17.72	<.0001	b, c < a
	중위권[b]	119.88	17.27			
	중하위권 이하[c]	111.08	17.31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계속)

(N=301)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s test
부모님 경제력	중상 이상[a]	126.27	17.19	3.37	0.0357	b, c < a
	중[b]	119.29	17.77			
	중하 이하[c]	119.11	16.54			
간호학 전공 만족도	6점 미만[a]	109.19	16.48	46.26	<.0001	a, b < c
	6~8점 미만[b]	119.20	16.28			
	8점 이상[c]	131.36	12.87			

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은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전공 만족도(r=0.509, p<.05), 가족기능(r=0.286, p<.05), 극복력(r=0.574, p<.05), 진로태도성숙(r=0.524, p<.05), 교우관계(r=0.455, p<.05) 등의 모든 변수들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개인의 극복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N=301)

	전공 만족도	가족기능	극복력	진로태도 성숙	교우관계	대학생활 적응
전공 만족도	1.000					
가족기능	0.122**	1.000				
극복력	0.355**	0.475**	1.000			
진로태도 성숙	0.419**	0.175**	0.530**	1.000		
교우관계	0.148**	0.239**	0.457**	0.296**	1.000	
대학생활 적응	0.509**	0.286**	0.574**	0.524**	0.455**	1.000

** $p < .05$ * $p < .10$

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가족기능, 극복력, 진로태도성숙, 교우관계, 전공만족도 및 연령, 학년, 인지된 성적과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을 회귀분석식에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명목변수인 학년과 인지된 성적과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을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극복력, 교우관계, 진로태도성숙, 전공만족도 및 학년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2.199로 잔차들 간의 무상관 즉,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수정된 결정계수(Adj R^2) 는 0.56로 설명력은 56%이었다.

변수	β	SE	t	*p*
Intercept	12.21	9.07	1.35	0.1795
극복력	0.29	0.07	4.30	<.0001
진로태도성숙	0.14	0.04	3.21	0.0015
교우관계	0.26	0.05	5.55	<.0001
가족기능	0.04	0.07	0.58	0.5598
학년 - 2학년	-5.59	1.89	-2.96	0.0034
학년 - 3학년	-10.04	2.08	-4.82	<.0001
학년 - 4학년	-4.58	2.14	-2.14	0.0336
전공만족도	3.15	0.41	7.63	<.0001
연령	-0.15	0.24	-0.62	0.5357
학교성적 - 중상위권	1.32	2.14	0.62	0.5377
학교성적 - 중위권	-0.47	1.93	-0.24	0.8067
부모님경제력 - 중상이상	1.80	2.11	0.85	0.3955
부모님경제력 - 중	-1.04	1.58	-0.66	0.5101
F : 29.36		**R^2: 0.58**	**Adj R^2: 0.56**	

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극복력, 진로태도성숙, 교우관계, 전공만족도, 학년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의 변인으로는 학년, 인지된 학교 성적,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과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었다.

학년의 경우 4학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증가하면서 대학환경 및 학업에 대한 적응력이 생겨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방법적 기술이 향상되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국가고시 및 취업에 대한 위기감으로 학업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학업에 더욱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신지영(2000), 김효원(2005)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된 간호대학교는 3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이 된지 1년이 된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3학년에서 졸업하지 않고 4학년으로 진학한 첫 케이스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그들의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각각의 학년에 맞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 특히 저학년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 성적에서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보였는데, 본인의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인식한 그룹이 성적이 낮다고 인식한 그룹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학업에 대한 효능감 및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성적이 학업 성취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후균(2011), 부민수(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은 중상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이 중이나 중하 이하라고 답한 그룹보다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경제적 궁핍 청소년의 우울-불안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송해선, 백용매(201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이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정서적 지원의 효과가 여학생의 경우 유의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입학 후 일정시점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극복력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복력은 긴장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부적응을 예방하고 효율적 대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삶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케 한다는 점에서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지연(2014)은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극복력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대학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여 현실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극복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구자은, 2000; 박지아, 2002; 이수현과 최혜림, 2007)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력 수준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의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어려움이 당면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것이다.

진로태도성숙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간호학과는 졸업 후의 진로가 정해져있는 학과의 특이성이 명확히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대학생활 중 진로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진로에 대한 자아와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 및 선호도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태도인 진로태도성숙의 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적응의 수준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학업적응과 대학생활적응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김효원(2004)의 연구와 일치하며,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태도성숙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정명기(2010)와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 역시 진로태도성숙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이에 간호학과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고, 나아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우관계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인간의 성장 발달에 따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확장된 사회적인 인간관계이며 대학 뿐 아니라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반에 걸친 학교생활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교우관계가 학교생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김기형, 2005;

이봉화, 2002; 이현정, 1994). 또한 최명희(2014)는 북한이탈대학생의 교우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교우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휴학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간호학과의 대학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을 아우르는 결과라고도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학생을 찾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간호학과는 졸업 후의 진로가 이미 정해졌다는 특수성이 있는 학과이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가운데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대학생활적응뿐 아니라 나아가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근무할 때에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간호학과뿐 만 아니라 타 학과에서도 일정한 연구결과를 나타낸다. 종합대학의 각 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윤정(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이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어윤경(2011)은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취업률이나 주변의 권유로 적성에 대한 숙고

없이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기능과 대학생활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이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김수지(2012)의 연구와 일치하나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속하지 못하였고,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가족기능의 하부요인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미현(200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비교되는 결과로 가족기능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청소년기가 아닌 청년기에는 학교생활적응이 가족기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에서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를 맞이하여 확대된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학업적으로는 자율성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심리적, 사회적 독립을 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며 이러한 현상이 대학생활적응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되,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4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자신의 학업 성취율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그리고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이 높은 집단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진로태도성숙, 교우관계, 전공만족도 등이 있었다. 가족기능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나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소재 간호대학교 1개교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 재학생으로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표집대상이 된 대학은 남녀공학이 아닌 여자간호대학이라는 점과 간호학과 단과대학이라는 점에서 타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과 표집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표집대학은 3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된 지 1년 된 대학이라는 특이성이 있어 타 대학 간호학과의 4학년과 표집 대학의 4학년과는 전공 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일 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희망자에 한하여 표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김동희(2003)의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 도구를 이현화(2003)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인 극복력 척도,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 Bukowski, Hoza와 Newcomb(1987)가 개발하고 Parker와 Asher(1989)가 수정한 후 이현정(1994)이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한 교우관계 척도, Portner와 Bell에 의해 1978년 최초 개발되고 Olson, Lavee(1985) 등에 의해 3차례 수정 보안 및 표준화 된 후 전귀연(1993) 등이 번안한 가족기능 평가척도 FACES-Ⅲ(Family-Adaptability-Cohension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중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구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극복력, 교우관계, 진로태도성숙, 가족기능과의 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는 학년, 인지된 학교 성적,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과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F=5.57, p=.001)의 대학생활적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인식한 그룹이 그보다 낮다고 인식한 그룹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17.72, p<.001).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은 중상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이 중이나 중하 이하라고 답한 그룹보다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고(F=46.26,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6.26, p<.001).
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전공만족도(r=0.509, p<.05), 가족기능(r=0.286, p<.05), 극복력(r=0.574, p<.05), 진로태도성숙(r=0.524, p<.05), 교우관계(r=0.455, p<.05) 등의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년, 극복력(β=0.29, p<.001), 진로태도성숙(β=0.14, p=.001), 교우관계(β=0.26, p<.001), 전공만족도(β=3.15, p<.0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은 전공 만족도, 극복력, 진로태도성숙, 교우관계, 학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제가 다른 3년제와 4년제, 남녀공학이거나 여자대학교 등의 학교

형태, 다양한 지역의 타 간호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과 교과, 교과 외 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211-242.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구현숙, 박현숙 (2005).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관련변인. *상담학연구*, 6(2), 373-385.

곽윤경 (2013).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178-2186.

권혜진 (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건희 (2014).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3), 310-313.

김기형 (200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김동희, 유일영 (2010).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40(2), 236-246.

김덕진, 이정섭 (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44-254.

김명덕 (2011). *가족기능이 청소년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

김미향 (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

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김민, 조선희, 전경숙 (2014).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적응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 체계적 문헌고찰.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22(3), 109-119.

김수지 (2012).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

김영자 (2006). *공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직업성격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와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김은아, 장금성 (201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 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312-322.

김제한 (1982). *교육심리학.* 서울: 학문사.

김종운, 김지현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48-259.

김현욱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김효원 (2005).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효정 (2014).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과의 관계. *한국컨텐츠학회 논문지,* 14(2), 376-386.

김후균 (2011). *중학생들의 체육성적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광주.

박상희 (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연구, *초등교육학회*, 16(2), 59-81.

박수진 (2009).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업 성취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박승미, 김철규, 차선경 (2014).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양면성, 정서조절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300-307.

박연수 (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주영 (2011).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및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

박지아 (2002).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간의 관계: 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진아, 이은경 (201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7(3), 267-276.

배새봄 (1999). *정신분열병 환자가족의 정서적 부담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

부민수 (2010). *중학생의 정서적, 동기적 특성, 학습습관, 학업성적만족도와 학업 성취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

서정희 (201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송윤정 (201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송정애, 장정순 (2010).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1),

119-144.

송해선, 백용매 (2013). 경제적 궁핍 청소년의 우울-불안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물질적, 정서적 지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23-42.

송혜리 (2010).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어윤경 (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분석: 대학 전공 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0(1). 167-189.

이동재 (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정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미라 (2014).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준비스트레스와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전남.

이미현 (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봉화 (2002).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

이성희 (2006). 멘토링프로그램이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2(2), 247-254.

이수현, 최혜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한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이지연 (2014).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현정 (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현화 (2003).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임규혁, 임웅 (2012). *교육학 심리 2판*, 학지사.

임용수 (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9, 107-129.

장만철 (2007). *학생집단에서의 교육적 관계 탐색*, 교육원리연구. 12(1), 145-174.

장성화, 윤향숙, 김순자, 박영진 (2010).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사회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교육종합연구*, 8(2), 140-157.

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

전혜경 (2006). *자녀의 부모화 및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정희석 (2013). *대학교 체육특기자의 수업참여가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

조연교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활용이 진로태도성숙도, 진로준비행동,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조원숙 (2008). *대학생의 전공, 흥미 일치도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

조형래 (2011). *진로교육 운영방법이 대학생 진로태도 및 진로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조화경 (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기능과 진로태도성숙도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차은주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명희 (2014).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천.

최민산 (2007). *모바일 칭찬 기록장을 활용한 상호칭찬활동이 교우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충북.

통계청 (2014).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Ⅳ. 여성의 사회적 지위*, 26. 성별대학진학률.

현진원 (1992). *완벽주의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 · 취업통계

편 (SM2012- 13-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진로성숙도 검사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계옥, 강혜원 (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13, 133-144.

Adams, H. E. (1972). Psychology of Adjustment.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Allport, G. W. (1961). Pattern & Growth in Personality, *N. Y., Halt Rinheart.*

Arkoff, Abe (1968).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New York : *McGraw-Hill.*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179-189.

Baker, R, W., & Siryk, B. (1986). Exploratory intervention with a scale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3(1),* 31-38.

Berndt, T. J. (1981). *Relations between Social cognition, non-social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 The case of friendship. In J. H. Flavvell & L.Ross(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Cambridge Univ. press.

Bukowski, W. M., Hoza, B., & Newcomb, A. F. (1987). *Friendship, popularity, and the "self" during adolesc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ine, Department of Psychology.

Carver, C. S. (1998). Resilience and thriving: Issues, models, and linkages. *Journal of Social issues, 54,* 245-266.

Damon, W. (1982).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Fass, M. E., & Tubman, J. G. (2002). *The influence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y in the School, 39(5), 561-573.

Gates, A. I. (1970). *Educational Psychology*(3rd ed.). MacMillan.

Hartup, W. M.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Lazarus, R. S. (1969).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ew York. Mcgraw Hill Inc.*

Lazarus, R. S. (197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Morris, C. G. (1985). Psychology: An Introduction(5th ed.). N. J.: *Prentice Hall.*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Journal of Family Therapy, 22*(1), 147-164.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9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

Olson, D. H., Porter, J., & Lavee, Y. (1985). *FACESⅢ.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Olson, D. H., Russel, C., & Sprenkle, L. H. (1983). Circumf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 Ⅳ: Theorec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Ⅰ. Cohesion and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aker, J. G., & Asher, S. R. (1989). Peer relations and social adjustment: Are frienship and group acceptance disinct domains? in W. M. Bukowski(Chair), Properties, process, and effects of friendship relat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r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as City, MO.

Piaget, J. (1963).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 Y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Seyedfatemi, N., Tafreshi, M., & Hagani, H. (2007). Experienced stressormrqhrfur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mrqhrfuring* students. *BioMed Central Nurmrqhrfuring, 6*(11).

Schaffer H. F.(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Wagnild GM., & Collins JA.(2009). Assessing resilience. *Journal of Psychosocial Nurmrqhrfuring & Mental Health Services, 47*(12), 28-33.

Wagnild, G.M., & Young, H.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ance scale. *Journal of Nurmrqhrfuring Measurement 1*(2), 165-78.

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Kim Ji Youn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307 nursing students in S women's college of nursing. The instrument used w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resilience, friend relationship, and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Ⅲ. Descriptiv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de (F=5.57, p=.001), academic achievement (F=17.72, p<.001), economic status (F=3.37, p=.04), and satisfaction in major (F=46.26, p<.001) in college life adjustmen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atisfaction in major (r=0.509, p<.05), family functioning (r=0.286, p<.05), resilience (r=0.574, p<.05), career attitude maturity (r=0.524, p<.05), and relationship of friends (r=0.455, p<.05).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ilience (β=0.29, p<.001), satisfaction in major (β =3.15, p<.001), career attitude maturity (β=0.14, p=.001), and relationships with friends (β=0.26, p<.001)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summary, the fa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included satisfaction of majors,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relationship of friends, and grad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is required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major in each grade in order to improve their college life adjustmen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counsel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owth program that can improve friendship and resilience. In addition, developing a mentoring program can help mature individual path attitude is also necessary. These programs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to improve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부 록

설 문 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참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가족과 스스로를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 학교 적응과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의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의 문항은 정답이 없고 높거나 낮은 점수가 없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자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응답들은 앞으로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 작성에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김지연 (ceciljy@naver.com)
연락처: 010-4549-679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를 하거나 채워주세요.

1. 연령: 세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⑥ 무교

4.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는?

① 자가 ② 하숙 ③ 자취 - 혼자 ④ 자취 - 형제, 자매, 친척과 같이

⑤ 자취 - 친구, 동료와 같이 ⑥ 기타 ( )

5. 학교 성적은 어떠합니까?

① 상위권 ② 중상위권

③ 중위권 ④ 중하위권 ⑤ 하위권

6. 부모님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7. 간호학의 전공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가족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우리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보통	4 대체로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1.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2. 우리가족은 문제해결을 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3.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그들을 인정해 준다.					
4. 우리 집에서는 우리들은 집안에서 우리 자신들과 관련된 규칙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 우리가족은 무슨 일이든 우리가족끼리 함께 일 하기를 좋아한다.(예: 집안문제 결정, 여행, 외식 등)					
6. 우리가족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라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7. 우리 가족은 외부사람들보다 우리 가족끼리 더 친하다.					
8. 우리가족이 일을 행하는 방식은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다.					
9. 우리가족은 함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10. 우리 가족은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의논한다.					
11. 우리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12. 우리가족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다.					
13. 우리 가족은 가족행사에 모두 함께 참여한다. (예: 명절, 제사, 생일)					
14. 우리가족의 규칙은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보통	4 대체로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15. 우리가족은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낸다. (예: 취미, 오락 활동 등)					
16.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다른 가족과 상의한다.					
18. 우리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꼭 정해져 있지 않다.					
19. 가족 집에서는 가족의 협동 및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 우리 집에서는 어떤 집안일을 꼭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보통	4 대체로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해낼 수 있다.					
3. 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5.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6. 나는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					
7. 나는 지금의 나 자신이 좋다.					
8.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9.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10. 나는 소중하다.					
11.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12.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13.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14.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15. 나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다.					
16. 내 일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보통	4 대체로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17.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에 나선다.					
18.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19.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20.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1. 나는 맡은 일은 끝까지 노력한다.					
22. 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23. 부모님은 나를 만족스러워하신다.					
24.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명은 있다.					
25.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2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28. 나는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29.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30.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31.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32. 비록 부모님이 자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좋은 부모님이시다.					

다음은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명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있다.					
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4.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5.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6.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7.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8.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9.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1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					
12. 나는 근무시간이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4.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15.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7.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18.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19.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20.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21.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이지 막막하다.					
22.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24.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25.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2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27.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28.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줄지 걱정이다.					
2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30.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31.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3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획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33.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34.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길 원한다.					
3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36.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3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38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39.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40.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41.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42.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없다.					
43.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44.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45.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46.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47.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다음은 대학생활에서의 교우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최근 학생의 생각과 상태를 고려하여 하나를 선택 후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 점심시간에 항상 함께 식사한다.					
2. 나는 내 친구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난다.					
3. 내 친구들은 내가 일을 잘해낸다고 나에게 말한다.					
4. 다른 친구들이 내 험담을 하면 내 친구들은 나를 감싸준다.					
5. 서로가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준다.					
6. 일을 할 때 항상 파트너로 서로를 선택한다.					
7. 내 친구들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사과한다.					
8.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험담한다.					
9. 내 친구들은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10.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에게 화난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11.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좋아한다.					
12. 내 친구들은 나의 지적인 능력을 인정해 준다.					
13. 내 친구들과 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항상 서로 이야기한다.					
14. 내 친구들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5. 나는 어떤 일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내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16. 나와 내 친구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도와준다.					
17.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푼다.					
18. 나와 친구들은 함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유흥을 즐긴다.					
19. 나는 내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20. 나는 내 친구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					
21. 나와 친구들은 서로의 집을 왕래한다.					
22. 나와 친구들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낸다.					
23. 내 친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24. 나와 친구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25. 나와 내 친구들은 싸우면 쉽게 화해한다.					
26. 나와 내 친구들은 싸움을 많이 하는 편이다.					
27. 내 친구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겼을 때 나를 지지해준다.					
28. 나와 친구들은 서로에게 화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알고 있다.					
29. 내 친구들은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30. 내 친구들은 서로를 많이 괴롭힌다.					
31. 내 친구들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32. 나와 친구들은 서로에게 물건을 빌려준다.					
33. 내 친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34. 나와 친구들은 의견충돌이 일어날 때 빨리 해결한다.					
35. 아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끝낼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36. 내 친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37. 나와 친구들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					
38. 나와 친구들은 주어진 과제를 서로 도우며 해결한다.					
39. 나와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40. 내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음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최근 학생의 생각과 상태를 고려하여 하나를 선택 후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 나는 대학 내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					
2. 근래에 나는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3. 나는 학업을 밀리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다.					
4. 나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5. 나는 왜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6.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7. 나는 최근에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하다.					
8.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잘 참여하고 있다.					
9.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0. 나는 시험기간 중에는 잘 지내지 못한다.					
11.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					
12. 홀로 서는 것,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					
13. 나는 나의 학업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14.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5. 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16. 나는 특히 이 학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7. 나는 학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18. 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					
19. 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있다.					
20. 나는 최근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					
21. 나는 사실 해야 하는 공부를 해 낼 만큼 머리가 좋지는 못하다.					
22. 집이 그리워서 힘들다.					
23. 학사학위를 따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24.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25. 나는 최근에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6. 나는 기숙사생활(혹은 하숙, 자취)을 잘 해나가고 있다. (해당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마십시오)					
27. 나는 수강과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28. 나는 최근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29.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30.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과외 활동들에 만족하고 있다.					
31. 나는 최근에 학교상담소 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32.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33. 나는 같은 방 친구(기숙사 혹은 하숙)와 잘 지내고 있다. (해당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마십시오)					
34. 나는 다른 대학에 갔더라면 하고 바란다.					
35.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다(혹은 줄었다).					
36.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고 다양하다는 데 만족한다.					
37. 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8. 나는 최근에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39.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고 할 때 주의 집중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0.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41. 나는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42. 나는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못하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43.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44.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45. 가끔 내 생각은 너무 쉽게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46.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7. 나는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다.					
48. 난 최근에 이성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고 있다.					
49.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50.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51. 나는 최근에 대학생활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52. 나는 과제물을 시작하는 데 힘이 든다.					
53. 나는 대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54. 나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55. 나는 최근에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다.					
56. 나는 다른 학생들과 스스로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데, 난 그것이 싫다.					
57.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내 용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58.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에서의 학과 공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59. 최근에 나는 대학을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60. 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61.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62. 나는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63. 나는 무슨 문제이든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몇 있다.					
64. 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65.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꽤 만족하고 있다.					
66. 나는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67. 나는 대학생활에서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